

전성 이르는 가르침 계승하자



12월 19일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열린 '효당 최범술 대종사 탄신 백주년 기념 추모 차담회'에는 스님을 기리는 차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반야로 차도문화원의 공수선차 시연 모습.

▶자연스럽게, 몸 마음 가지런히

근현대 우리 차문화의 맥을 이은 효당 최범술 스님(1904~1979)을 기리는 차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차 한잔을 공양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반야로 차도문화원(원장 채원화)은 12월 19일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효당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추모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 차인 이인 박종현(대아 중고등학교 설립자)과 대화장 목정배(동국대 명예교수), 집행위원장 김상현 교수(동국대), 한국차인연합회 박권환 회장, 윤병상 교수(연세대) 등 효당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차인들을 비롯해 스님의 차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반야로 차도문화원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자학교와 다술사 불교전수강원, 해인대학 등을 창설한 교육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8·15 광복 후에는 제헌국회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일선에서 풀려나 다술사에서 불교와 다도 연구에 전념했고, 73년 <한국 차도>를 펴내 차생활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채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효당 스님은 우리나라 근대 차문화의 중흥조"라며 "만년에는 교학 복원과 연구에 힘쓴 스님의 사상을 되짚어 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효당 스님에 대한 현황과 현재에 이어 문도들의 추모글 현증, 공수선차와 말차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반야로차도문화원은 효당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추모글을 모아 책으로 발간해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02)763-8486 글·사진=여수형 기자

▶차 만드는 법

덤고, 띄우기 반복하는 증차 유명

효당 스님은 제차법 중에서 증차(蒸茶)를 만드는 법을 전수한 것으로 유명하다. 증차법은 봄에 새순을 따서 생잎 자체를 가마솥에 넣고 100도의 끓는 물에 데쳐 꺼내어 비비다가 다시 솥에 넣어 데쳐내어 물기를 빼서 덩고, 띄우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증차 만드는 법은 생잎을 가마솥에 찌고 꺼내어 비비다가 다시 구수하게 뒤는 부초차(釜炒茶)보다 훨씬 섬세하고 까다롭다. 그러나 부초차와는 달리 자극성이 없어 위를 상하게 하지 않고 색, 향, 미가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반야로차도문화원은 이러한 증차법으로 만든 차를 '반야로'라 이름하고 전승하고 있다.



반야로차도문화원 채원화 원장이 증차를 만들고 있다.

▶효당 스님의 차 정신

현대 차도 부흥위해 한평생

효당 스님의 차정신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차도무문(茶道無門)과 차도용심(茶道用心)이 그것이다. 차도무문이란 직업이나 나이,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느 장소, 어느 때에도 차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차도무문 수행의 중심에는 차도용심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차도용심은 차생활을 하는데 있어 다기(茶器)를 다루는 행위와 그 때의 마음자세를 포함해서 일컫는 말이다. 즉, 차를 마시는 일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용하되, 그 가운데 몇 가지 유명한 규범이 있다는 것이다. 효당 스님은 차를 다루는 자세와 행위가 자연스럽게 겸소하고, 차

가 간이 맞아야 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하고, 때와 장소에 어울려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를 대할 때 마다 이러한 물가집과 마음자세를 가지려는 것이 효당 스님의 차정신이다. 스님은 저서 <한국의 차도>에서 "선차란 차 마시는 일상적인 일을 도에 붙여 이른 말로, 차 마시는 일을 통해 직관적인 선의 경계에 가 닿는 일을 말한다"며 "차를 달여 직접 혀끝에 올려 쓰고, 뿔고, 시고, 찌고, 맵고, 단 육미를 음미하여 자신의 존재와 우주의 일체감을 체득하는 것이 바로 차선의 경성(性)"이라고 강조했다.

■<초의선사 장의순>

우리나라 차의 증흥조라 할 수 있는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의 일대기를 소설화 한 <초의선사 장의순>이 2년여 간의 집필 끝에 선보였다. '차(茶) 선(禪) 목(墨)'의 대가라 불렸던 초의선사는 시, 글씨, 그림은 물론 법패, 탕화, 단청, 바라춤에 이르기까지 두루 능했던 다재다능한 선승(禪僧)이었다. 지은이는 초의선사가 깨우침을 얻은 영암 월출산과 오랫동안 지관 수행을 했던 해남 일지암 등을 직접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지은이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초의선사의 어린시절과 출가 후의 행적이 오롯이 되살아난다.

1부 '출가'에서는 15세의 나이로 출가하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한 필체로 그리고 있다. 2부 '득도'와 3부 '만행'에서는 운흥사 벽봉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과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와의 교유를 담고 있다. 4부 '귀의'는 대흥사 일지암에서 세수 80세로 입적하기까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성우 스님(불교TV회장은 '초의선사' 한자를 깨우쳐가는 장면과 다선일미(茶禪一味)의 경지를 터득하는 장면 묘사가 절묘하기 이를 데 없다"며 "문화적 성숙기에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거인(巨人)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고 평했다.

작가 김영무씨는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희곡으로 등단했으며 현재 (사)한국문인협회 희곡분과회장과 계간 <극작에서 공연까지>의 주간을 맡고 있다. 한국희곡문학상(85년)과 행원문학상(2002년), 한국문학상(2003) 등을 수상했다.

■전통다례교실 수강생 모집

(사)청년여성문화원은 2005년 1월 5일부터 열리는 전통다례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다례교실은 3개월 간 매주 오전 10시~12시까지 북촌전통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6만원. 수강신청 전에 강좌 견학도 가능하다. (02)796-6644

■예명원, 계절학기 개강

사단법인 예명원(이사장 손민영)은 제35회 예명계절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예명계절학기는 10일간 총 50시간 동안 한중일 다도와 전통예절, 생활예절 등을 배우게 된다. 2005년 1월 31일~14일, 1월 17일~28일, 1월 31일~2월 11일, 2월 14~25일 총 4차에 걸쳐 진행된다. (02)722-3767



유진강 교수의
연표로 보는 (12) 차 문화사

후삼국시대 ①
번성했던 신라문화가 마지막으로 찬란한 꽃을 피우고 약간의 정치적 불안상태를 나타낸다. 왕이 사찰이나 고승에게 다약(茶藥)을 보내고 불사를 많이 했다. 새로운 사찰을 건립하고 탐비를 세우는가 하면 입당 유행한 선비나 스님들이 귀국할 때 당의 다품을 익혀거나 그들의 차생활을 익혀와 퍼뜨리게 됐다. 890년 이후에는 견훤과 궁예가 등

장해 세력 확장을 위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도 왕공귀족에서 문인에 이르기까지 차를 마셨다. 황실에서 법사(法師)에 내린 다구는 지금도 지하궁에서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배후, 온정균, 육구룡, 피일후 등

유학파들 귀국하며 당 다품 전파

의 문인들도 차를 즐겨 많은 시와 기록을 남김으로써 차를 한 층 높은 차원으로 승화 발전시켰다. 특히 선가의 조주종심 같은 고승이 나와 차와 선을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 놓았다.

향과 차를 보냈다. 성주사 유적 중에 '다향사(茶香手)'라 새긴 비문(碑文)이 있다. ② 최치원은 진감국사와 무염국사의 비문에서 차 얘기를 했고, 중국에 있을 때 부모를 위해 질 좋은 다약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친다' ③ 조주종심(趙州從諶, 778~897)은 산동 조주 사람으로 속성은 학씨다. 조주지방의 관음사에 머물러 조주라 불렸다. 남종보원 선사의 문하에서 크게 깨달았다. 차를 즐겨 '차나 한잔 마시라'는 뜻의 '깍다거(喫茶去)' 화두로 유명하다. ④ 당나라 황실에서 사용하던 다구

들을 법문사의 지하궁에 두었던 것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 모양이나 구조가 육우의 <다경>에서 말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⑤ 당대의 시인으로 차를 좋아해서 '고인기다(故人寄茶)'라는 시가 있다. ⑥ 당대의 시인으로 차를 좋아했다. 그는 '고저산기'를 비롯해 많은 다시를 남겼다. ⑦ 조주종심(趙州從諶, 778~897)은 산동 조주 사람으로 속성은 학씨다. 조주지방의 관음사에 머물러 조주라 불렸다. 남종보원 선사의 문하에서 크게 깨달았다. 차를 즐겨 '차나 한잔 마시라'는 뜻의 '깍다거(喫茶去)' 화두로 유명하다. ⑧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시대별 연표		⑧ 표는 약(About)	
한국	중국	일본	
850 성주사에 왕이 차와 향을 보냄 ①	852 배후(裴休)가 전문사기하다	나라 시대	898 우다왕(宇多王)이 현상에서 차를 마시
857 최치원이 당(唐)에서 차를 보냄 (계원발경)	두목(杜牧)이 죽다(다시 '다산 茶山')		
858 최중에게 왕이 차를 내림	856 서부경수목(양화) ②		
860 보림사에 다약(茶藥)을 내림	③ 온정균의 활동 ③		
865 도파산사 비로자나불 완성	873 희중(僖宗) 즉위		
869 김용 등이 견당사로 감	874 법문사에 다구(茶具) ④		
872 남공(南宮)의 일당	⑤ 조립(曹勣)의 활동 ⑤		
873 황룡사 구층탑 수리	⑥ 심유당품(심유)		
874 최치원이 당에 등과(登科) ②	880 황소의 난		
① 수철화상(817~893)이 차를 즐김	881 육구룡이 죽다		
880 보조선사 창성탑미	883 피일후가 죽다 ⑥		
888 무염국사 입적, <삼대목> 편찬	⑦ 마은(馬殷) 계기 등이 활동		
892 후백제(건원)	885 이극몽의 등장		
895 궁예가 창경(稱王)하다	997 조주(趙州) 사망 ⑦		
898 차인(茶人) 도선(道詮) 입적			

"토르말린, 수정석, 백반석 등의 천연광물이 뽐어내는 그 시원하고 후끈후끈한 열기, 이것이 바로 이열차일!"

원적외선 불가마

형식승인번호(안전인증번호): HU07305-2001A

5분 충전! ▶▶ 3시간 연속찜질!

딱 한번만 무료체험해 보십시오!
후끈후끈한 원적외선 열찜질!
몸 속 깊이 침투하는 그 시원함!
정말 놀랍습니다.

- 불과 5분 충전으로 3시간동안 연속찜질 OK!
- 전원차단으로 무선찜질, 유해전자파 걱정 NO!
-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는 편리성 YES!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도 그만!

- **제품의 특성**
 - 최신 특수공법에 의한 견고한 제품
 - 수많은 실험으로 안전성, 기능성 확보
 - 인체공학적 설계로 몸의 어느부위에도 밀착성 우수
 - 내부 발열온도 135℃, 표면온도 60~70℃
 - 원적외선과 음이온 다량발생 (원적외선 방사율 약 90% 음이온 182/cc)
- **주요 용도**
 - 노약자 보온용 및 무릎, 어깨, 관절 찜질
 - 여성의 아랫배, 손발을 따뜻하게
 - 학생이나 직장인의 목, 어깨 찜질 또는 베게대용
 - 아픈곳이나 다친 곳의 찜질
 - 낚시, 등산, 야영, 야외 작업시 보온용
 - 추고 습기찬 곳에서의 보온용

■ 자매품 : 청즙(3g 30포) 45,000원, 크로렐라 (200ml 1600정) 75,000원
www.bb21.com • 상담실 : (02)969-8080

좋은 책, 향기로운 삶
월간 다도 과일호를 판매합니다

과월호의 권장 가격은 5,000원
문의전화 | 02)722-7777